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발제논문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 군선교회원교회 중심 -

A study on the Effec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ivil Elements for the Military mission
- based on the Vision 2020 Movement -

주연종 Ju, Yeon Jong

- 총신대/동 신학대학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Th. M)
- 풀러 신학대학원 수학
- 총신대 대학원(Ph. D.)
- 예비역군목(#50)
- 현 사랑의교회 부목사



1. 서론

1) 연구의 목적

군선교가 군 내외는 물론 교회 안팎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며,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적인 민간요소의 모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선교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전제 속에서 법령에 따라 군에서 허용한 4개 종교¹⁾가 군 조직의 존재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협력하며 공존하는 가운데 각 선교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선교이다.²⁾ 따라서 군선교에는 일반적인 선교 현장이나 목회 현장에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혼합으로도 오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한국군 내에서의 군선교는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종교 간 갈등이나 상호 공격적인 태도를 자제하며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며 활동하고 있다.³⁾

따라서 군선교는 군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이기는 하나 엄연히 군 외의 조직이나 종교단체에서의 성직자 파송, 관리, 후원 등의 이른바 민간요소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군 내부에서는 성직자의 양성 및 파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민간 종교단체로부터 양성되고 파송된 성직자를 군에 편입시켜 활동하게 함으로 군 내에서의 바른 신앙을 통한 신앙의 전력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군선교에서 민간요소가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군선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요소가 어떤 선교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논거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민간요소 모델을 찾기로 한다.

¹⁾ 2007년에 원불교 군종장교가 임관함으로 현재 군 내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교가 군종병과의 구성 종교로 편성되어 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불교 비구니를 시작으로 여성 군종장교도 임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²⁾ 김창제, 『군선교』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188-189.

³⁾ Ibid., 189-190.

2) 용어의 정의

(1) 군선교

‘군선교’라 함은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군인과 군속,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이다. 군대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기능 중심으로 편성된 조직이다.⁴ 그러므로 군선교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이기에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⁵

(2) 민간요소

‘민간요소’라 함은 현재 군의 공격 및 방어 작전 간 고려하는 METT-TC⁶ 요소 중 마지막 요소로서 민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작전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전에서의 민간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아티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곳에서의 한국군 작전은 대부분이 민간요소인 정부행정기관과 주민을 지원하는 민사작전⁷으로서 군중활동도 민사작전의 한 부분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민간요소라 함은 군목을 포함한 군인과 군의 시설

과 장비 및 조직을 제외한 민간교회 및 목회자, 종교단체, 교단, 민간성직자(이하, 군선교 교역자) 등 민간에 해당되는 군선교와 연관된 모든 요소를 칭한다.

(3) 연구방법

먼저, 군선교에 있어서의 민간요소의 역사를 살펴보고 군선교연합회와 관련 단체들의 발전과정을 기술함으로 지난 60여 년간 군선교 현장과 관계했던 단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민간요소에 해당되는 제 기능들의 역할을 기술한 후 본고의 핵심 주제인 비전2020실천운동과 민간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향후 민간요소가 군선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으로 민간요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연구에 있어서는 그간 발표되었던 각종 군선교 관련 논문들은 물론, 국방 외교의 전문자료들도 활용하되, 무엇보다 군선교연합회와 관련 단체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사례들과 설문 내용을 분석하고 통계들을 참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들을 근거로 미래 예측 기법을 통해 향후 민간요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2.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사

1) 민간요소의 역사

⁷ 민간요소는 최근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이를 별도의 작전으로 취급 ‘민사작전’(民事作戰, civil affairs operation)이라 칭하여 수행하고 있다. 민사작전을 통해서 군은 주민과 정부행정기관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의료, 교육, 환경 개선 등의 분야를 지원하기도 한다. 군중은 민사작전 중 인도주의 작전(humanitarian operation)에 투입되어 종교행사, 상담, 위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⁴ 프러시아의 군사이론가이자 군인이었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으로 정의하고, 적을 굴복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폭력 행위로 설명하였다. 전쟁은 폭력과 비인간적인 비극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논리나 이론보다는 감성과 경험이 앞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며 이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군선교 이해의 선결 조건이다.

⁵ 서정운, “군선교의 기본방향”, 『군선교신학』, 총회군선교부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국, 1990), 21.

⁶ METTTC라 함은 임무(mission), 적 상황(enemy), 지형 및 기상(terrain), 가용부대(troops),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고려요소(civil consideration)로서 공격이나 방어 간 거의 모든 군의 제반 작전 간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한국 최초의 군인교회와 한국 최초의 군부대 내의 예배는 조선경비대 창설 이후 전국에 흩어져 있던 경비대 내의 신자 장병들이 주변의 민간교회들의 지원을 받아 산발적으로 종교행사를 갖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다.⁸ 그중 잘 알려진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사례로 용산에 있던 해군 중심의 군인교회 설립이다. 1948년 늦가을부터 해군의 정달빈 목사, 육군의 황기오 상사, 이광민 씨,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여사 등이 남산감리교회당을 빌려 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집회에 육군과 공군의 장교들과 그 가족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1949년 2월 5일 용산군인교회가 생겨나 3군 군중활동의 모체가 되는 교회로 정착하게 되었다.⁹ 그런데 이때 해군의 정달빈 목사로 기록된 인물은 해군 제독 손원일이 초청한 인물로서 당시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목이었다.¹⁰ 한국 최초의 군인교회 목사로 군인교회 창설에 기여한 인물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1948년 가을, 전북 군산에 주둔한 보병 제12연대 내에서 시작된 육군 최초의 군부대 내의 종교 활동이다. 당시 제1대 연대장이었던 백인기 중령과 3대대장 전창영 소령은 종교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산 일대의 민간목회자들을 초빙하여 군부대 내 예배를 시작하였다.¹¹

위 두 사례뿐 아니라 1949년 10월 23일에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가 철수하자 그 자리에 보병 제12연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군이 사용하던 교회를 12연대 군인교회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당

시 12연대 군인교회를 담임하였던 목회자는 모두 인천지역의 민간목사들이었다.¹²

한국전쟁 중에는 1951년 2월 7일 육본 일반명령 제31호로 육군본부 인사국 내에 군승과를 설치하고 군목제도가 출범하게 된다. 이때에도 보수 없는 촉탁 시대인 무보수 촉탁으로 민간성직자를 군 내에서 활동하도록 했다.¹³ 1951년 2월 28일 1기로 입대한 군목을 시작으로 1952년 2월 24일 제3기까지 135명이 무보수 촉탁 신분으로 근무했고, 1952년 4월 15일 제4기가 입대하면서부터는 목사 안수를 받은 군목을 정식으로 ‘군목’으로 칭하고 모자에 백색 십자가를 부착하게 했다.¹⁴

이후 1952년 6월부터 모든 군목이 ‘유급군목’이 되면서 군속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문관 2-3급의 직급을 부여받고 본격적인 군목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 시기를 문관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1953년 12월 12일까지 계속되었고, 1954년 1월 12일 육본 일반명령 제9호에 의해 군종감실 설치령이 하달되어 문관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에는 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던 군목들을 선별하여 임관하도록 하여, 135명이 중위로부터 대령까지 계급을 부여받고 현재와 같은 정식 군종장교의 신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¹⁵ 그러므로 민간요소로서의 민간교회와 민간목회자로부터 군목, 혹은 군종병과로 군선교와 군중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유급군목시대, 즉 문관시대로 봄이 타당할

¹² 김순권, Ibid., 317.

¹³ 1951년 2월 28일 32명의 목사와 신부가 무보수 촉탁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3월 12일에는 8명의 목사가 추가되어 장로교 24명, 감리교 10명, 성결교 4명 그리고 천주교 2명으로 구성되어 한국 군종병과의 역사를 여는 기초를 놓게 되었다.

¹⁴ 이때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활동하게 된 목회자는 ‘보조군목’이라 하여 청색 십자가를 사용하여 구별하였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군종행정관 혹은 군종병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¹⁵ 김순권, Ibid., 317.

⁸ 김순권, “목회학적으로 조명해 본 군대목회와 민간목회”, 「군선교신학」, 총회군선교부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0), 316.

⁹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서울: 쿤란출판사, 2004), 128.

¹⁰ 김순권, op.cit., 316.

¹¹ 육군본부, 『군종 50년사』 (2003), 67-68.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 군인교회와 군종제도의 태동기의 상황을 살펴볼 때에 최초의 군인교회나 군부대 내 최초의 종교활동에는 민간교회나 민간목회자가 기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제도적으로 군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후 민간교회들은 베트남 과병을 전후로 하여 본격적으로 군인교회들을 후원하게 되었다. 1965년 당시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 박사를 중심으로 ‘전국복음화운동’을 펼치면서 1968년에 김 총장이 조직한 ‘새시대복음화운동본부’를 통해 황금어장인 군부대의 복음화를 위해 각 군 참모총장과 각 군 군종감, 한경직 목사, 홍현설 목사, 강신명 목사 등이 협력하게 되었다.¹⁶

1969년 9월부터 시작된 1인 1종교 갖기 ‘전군신자화운동’이 1군 사령관 한신 장군에 의해 시행되어 민간교회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전방 오지의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53대의 오토바이를 기증하여 1군 산하의 군목들이 군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¹⁷ 전군신자화운동은 합동세례식으로 이어져 기독교는 물론 타 종교의 군선교 및 포교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72년 4월 11일 세종호텔에서 전군신자화운동을 위한 조찬 기도회가 열렸다.¹⁸ 이어서 4월 19일에 백낙준 박사의 자택에서 조찬 기도회를 갖고 명칭을 ‘전군복음화운동’으로 정하고 위원장에 백낙준 박사, 총무에 황성수 박사를 선임하였다.¹⁹ 이것이 후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모체가 되어 한국 군선교를 건인하는 역할

을 하게 되었고,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직화하고 동력화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2)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의 역사

1974년 11월 26일, 한경직 목사가 제2대 회장을 맡으면서 한국교회적으로 본격적인 군복음화운동이 전개되었다. 특별히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진중예배당 건축 사업은 군선교사역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으며, 1976년 7월 21일에는 ‘전군신자화후원회’라는 명칭을 ‘군복음화후원회’로 개칭하였다. 한편 1981년 3월 7일 ‘국군중 918.1-145’에 의거 ‘군복음화후원회’가 기독교 군종활동지원 및 군선교를 위한 단일 창구로 인준되어 명실상부 기독교계의 공식적인 군선교 대표 단일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 기독교의 군선교(군종지원) 공식 단일 창구라는 법적 근거는 1985년 7월 11일 ‘국군중 24250-150’에 의거 제차 강조된 후 1997년 10월 27일 ‘국방부훈령 제572호’에 의거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한편 군복음화후원회는 1988년 9월 11일 문화관광부 등록 사단법인체로 개편되면서 법인 초대 이사장에 박선희 목사가 취임한 후에 진중예배당 건축에 더욱 가속을 내었고, 전도·정책·교육·홍보·복지 등 전체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1998년 11월 13일 진중세례운동을 통해 민족복음화를 창출하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군종목사 파송교단과 함께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1999년 2월 9일 제28차 정기총회에서 ‘군복음화후원회’라는 명칭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약칭 군선교연합회, 영문약칭 MEAK)로 개칭하였다.

군선교연합회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중앙본부를 비롯해 국내 16개 지회, 해외 9개 지회(미주 8개 지회, 호주 1개 지회)를 두고, 국내의 경우는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육·해·공군·해병대 전체 부대를 대상으로 지회

¹⁶ 김창제, *op. cit.*, 128.

¹⁷ *Ibid.*, 129.

¹⁸ 김순권, *op. cit.*, 321.

¹⁹ 『한국기독교공보』 1972년 4월 22일자, 김창제, *op. cit.*, 132에서 재인용.

단위 활동을 초교파 연합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해외지회는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각 군 신교대, 교육사, 훈련단 등의 장병 진중세례식, 동절기 사랑의 온차, 군선교 교역자 파송, 군인교회 결연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선교비 등을 보내오고 있다.

3. 군선교와 민간요소의 역할

1) 교회의 역할

교회는 최초의 군인교회와 최초의 부대 내 예배 등을 지원하고 후원한 지역교회들의 사역으로부터 현재 비전2020 회원교회로 활동하는 사역까지 군선교 민간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장로교 6개 교단(고신, 기장, 대신, 백석, 통합, 합동 등)과 성결교 2개 교단(기성, 예성), 감리교, 침례교, 기하성 등 11개 교단이 군선교 후원 교단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²⁰ 이들 교단들의 2012년 세례식, 위문 및 육군훈련소 신축 예배당 후원 등의 현황을 보면, 감리교가 1억 2,400만 원, 기성이 2억 100만 원, 침례교가 1억 2,800만 원, 기하성이 17억 5,700만 원, 고신이 4,000만 원, 대신이 4,400만 원, 백석이 2억 3,900만 원, 통합이 3억 8,500만 원, 합동이 4억 7,500만 원, 예성이 1,800만 원, 기장이 3,000만 원 등에 이른다.²¹

위 교단에 따른 군선교회원교회가 약 4,300개 교회로 이들 교회 대부

²⁰ 11개 교단에 속한 산하 신학대학교 혹은 대학교에 군종장교 시험을 볼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학교명은 다음과 같다. 장신대, 호남대, 총신대, 한신대, 고신대, 안양대, 백석대, 한일장신대, 서울장신대, 대신대, 연세대, 광신대, 영남신대, 숭실대, 계명대, 한남대, 대전신대, 부산신대, 서울신대, 성결대, 목원대, 감신대, 협성대, 침신대, 한세대 등 총 25개 대학교이다.

²¹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2013. 2. 21), 33-34.

분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세례장병 결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²² 뿐만 아니라 회원교회 및 단체 교단들은 약 600명(전담자 약 380명, 비전담자 약 220명)에 달하는 군선교 교역자의 선교를 위해 직·간접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교회는 총 240개 교회 및 단체, 교단에 이르고, 연간 약 20억 원 정도를 군선교 교역자 선교비로 지원하고 있다.²³ 이밖에도 노회나 지회 단위로 군선교 교역자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곳도 약 20여 개 정도에 이른다.

2) 단체의 역할

MEAK는 한국교회의 군선교 단일 창구로 일원화된 후 한국교회의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군선교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2012년 MEAK 사업 후원 결산 현황을 보면 진중세례식 및 건축, 교육, 복지, 정책, 출판, 장학 등 16개 사업에 총 240억 원 정도의 선교비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MEAK가 직접 모금하여 사업을 진행한 직접사업의 경우는 13%인 33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약 210억 원은 후원자가 후원금을 직접 집행 또는 전달한 후 결과사항을 MEAK에서 종합하여 행정 정리한 것이다.

현재 한국 군선교는 MEAK의 관리와 행정 관할하에 한국교회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MEAK를 통해 각종 군선교사업의 영역으로 연간 약 150-250억 원 정도가 선교비로 후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²² Ibid., 95-117.

²³ Ibid., 121-125.

〈표1〉 군선교연합회 연도별 예산 규모

연도별	총계	일반사업	건축사업	시설유지사업	자산사업	홍보사업
총계	171,524,513,808	75,524,232,230	78,671,714,374	16,480,005,550	404,356,384	444,205,270
2012	24,706,376,479	8,195,865,078	15,876,551,870	573,169,790	31,489,741	29,300,000
2011	16,624,902,147	8,290,692,012	6,982,737,090	1,282,853,545	34,819,500	33,800,000
2010	13,745,012,942	7,004,076,612	4,667,889,130	2,011,864,100	20,583,100	40,600,000
2009	12,131,430,474	6,470,427,063	4,554,937,300	1,028,335,478	45,052,863	32,677,770
2008	13,055,448,773	7,314,005,584	4,950,667,359	671,367,650	26,680,680	92,727,500
2007	14,915,328,089	5,524,307,333	7,295,916,556	1,935,863,700	42,590,500	116,650,000
2006	14,282,449,052	5,368,176,766	6,253,449,970	2,531,232,316	31,140,000	98,450,000
2005	12,535,318,554	5,914,056,554	6,554,622,000	66,640,000		
2004	12,979,592,457	6,145,727,926	5,457,121,931	1,310,742,600	66,000,000	
2003	11,326,483,752	4,225,421,521	5,594,287,240	1,475,774,991	31,000,000	
2002	9,637,726,235	3,681,346,149	5,162,601,576	757,778,510	36,000,000	
2001	9,225,529,705	3,945,005,999	3,623,178,686	1,657,345,020		
2000	6,358,915,149	3,445,123,633	1,697,753,666	1,177,037,850	39,000,000	
비고	◎ 일반사업 : 비전2020사업, 전도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일반사업, 복지사업, 정책사업, 장학사업, 출판사업, 군선교 교역자 선교비 지원 사업 ◎ 건축사업 : 예배당 및 교육관 등 시설 신축 사업 ◎ 시설유지사업 : 개축, 보수, 비품 지원 사업 ◎ 자산사업 : 기동차량 지원 사업 ◎ 홍보사업 : 군선교신문 발간 사업, 군선교 영상물제작 보급 사업 등					

※ 출처: MEAK

한편, 군선교의 환경이 변하고 사회 풍조가 바뀌고 있고 병영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MEAK는 여러 사업들을 신설 혹은 통합해 왔다. 건축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사랑의은차보내기운동, 도서보급운동 등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모범 군종목사 미국 연수, 기독교 행정관 수련회, 꿈나무청소년 비전캠프, 군선교사훈련 비전캠프를 시행하고 있고, 군종목사 성지순례를 1단계(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등)만 해오던 것을 2010년부터 2단계(교회사 유적 중심-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그리스 등)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선교신학회의 정식 학회 등록, 군종목사 및 군선교교역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국군 상담심리코칭학회(생명 존중센터)의 신설(2012년 2월 15일), 군선교연구소 개소(2013년) 등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선교 교역자에 관한 직무교육 차원에서 2007년부터 군선교교육원을 신설하여 2012년 현재 12개 기수에 590명이 수료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²⁴ 이에 따라 군선교가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으로 토대를 더욱 견고히 놓을 수 있게 되었고,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MEAK는 군종병과와 관련하여 군종장교의 특별수당신설, 각 군 군종실의 총장 직속 기능으로 존속, 병역 대체법, 대북심리전, 이단 대처 등 정책 차원에서도 타 종단과의 차별화된 책임 있는 지원뿐만 아니라 기독교 군종활동의 권익을 수호하였다. 특별히 육·해·공군본부 교회당 건축,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비전센터 건축,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의 군목파송교단의 공식 후원사업, ROTC 후보생 주일예배 및 세례식,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자 연합조찬예배(매월), 비전2020실천운동, 한국교회 군선교 정책회의(분기), 금명간에 신축될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건축 등은 한국교회 연합사업의 결실이다.

요즘 한국교회의 연합사역이 어려운 시점에 군선교사역을 통해 초교파 연합사역의 모델이 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열매임이 분명하다. 즉, MEAK를 구심점으로 군종목사 파송 11교단이 연합하고, 개교회가 연합하고, 지역이 연합하고, 민·군이 연합하고, 관련 유관기관이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사실임에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²⁵

²⁴ Ibid., 127.²⁵ Ibid., 131.

한편 MEAK는 선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교회와 인접 부대 간의 원활한 선교를 위해 1985년에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지회를 필두로 국내에 16개 지회를 조직하여 지회와 지역 내 군부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지회마다 근접 부대들을 지정하여 지회 산하 교회들을 중심으로 사역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지회별 사무소를 개소하여 상근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에도 9개 지회를 두고 진중세례식 참여나 뿌리 문화 캠프 등을 통해 2세들에게 역사 문화 탐방 및 뿌리 인식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²⁶

MEAK 이외에도 각 교단별로 군선교후원회(예장통합), 혹은 군선교회(예장합동) 등의 조직을 갖추고 각 교단 산하 군목들에 대한 선교 후원의 형태로 교단 내의 군선교 역량들을 결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교단별 남·여전도회연합회, 예비역기독교인연합회, ROTC 예비역 기독교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등이 군선교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

3) 군선교 교역자의 역할

군선교 교역자²⁷란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교회를 섬기며 군선교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 교역자를 뜻한다. 현재 군인교회는 육·해·공군 합해서 약 1,004개가 있는데 현역 군목은 261명밖에 없어 특수지역을 제외하더라도 700여 교회를 섬길 교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MEAK는 민간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교회를 담임하는 전담 교역자 및 설교 지원 등 상주하지 않고 지원하는 비전담교역자의 두 가지

형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⁸ 현재 군선교 교역자는 총 632명으로 이들은 국방부훈령과 육군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군선교 교역자는 현역 군목과 함께 군선교를 담당하는 중요한 축이며, 인원이나 활동의 내용 면에서 현역 군목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군종학, 군상담학, 군목회학, 비교종교학 등 군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들로 편성된 군선교교육원을 수료하도록 하여 현장 적응성을 높여 가고 있다.

〈표2〉 연도별 군선교 교역자 교단별 파송 인원 현황

(단위:명)

구분	총계	고신	기감	기성	기장	기침	기하성	대신	백석	예성	정통	통합	합동	개혁	기타
2013	362	15	61	4	•	32	12	30	32	18	•	61	56	•	41
2012	388	17	78	4	•	31	11	28	29	12	•	66	65	•	45
2011	367	14	73	4	•	30	11	27	33	14	•	56	61	•	44
2010	644	21	139	7	7	42	17	35	40	14	•	106	124	•	92
2009	676	25	117	7	7	37	17	31	•	17	42	130	118	20	108
2008	622	23	91	6	7	32	17	28	•	18	33	132	109	18	108
2007	•	•	•	•	•	•	•	•	•	•	•	•	•	•	•
2006	475	25	78	8	5	34	19	16	0	16	28	105	94	27	82
2005	684	•	•	•	•	•	•	•	•	•	•	•	•	•	•
2000	404	•	•	•	•	•	•	•	•	•	•	•	•	•	•

※ 2004-2010년: 전체교역자(전담+비전담) / 2011-2013년: 전담교역자—출처: MEAK

일반 군종활동, 즉 참모활동이나 전시군종활동 등은 군종목사를 중심으로, 선교는 군선교 교역자와 군종목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군선교의 인적 자원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민간요소의 기여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²⁶ Ibid., 131.

²⁷ 국방부훈령 제973호와 육군규정 191에는 '군 종교 활동 지원 민간성직자' (민간성직자) 라고 표기되어 있고 약하여 '민간성직자' 로 표시하고 있다. 이를 MEAK에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살려 '군선교 교역자' 로 칭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군선교 교역자' 를 따르기로 한다.

²⁸ 김창제, op. cit., 161-162.

4) 해외 민간요소의 역할

2003년부터 MEAK는 해외 지회 결성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미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9개 지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해외 지회의 경우 미국 내의 주요 도시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⁹ 각국에 있는 교민사회와 교민교회를 중심으로 조국의 군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고, 군선교가 곧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때 복음의 거룩한 역류 현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도 초, 당시 막 불기 시작했던 군선교의 본격적인 접화기에 대한성서공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만국성서공회와 협의하여 미화 6만 달러 상당의 성경을 특별 제작하여 군에 기증하도록 지원한 바 있는데,³⁰ 해외의 선교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한국 군선교의 모델이 해외 각국으로 확산되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할 것이다. 현재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군선교의 개념을 상실한 채 기회를 놓치고 있고, 군종목사들은 상담과 결혼 등 종교적 관례만을 집행하는 경우로 활동이 국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³¹

이제 한국 군선교의 모델이 세계 군선교를 견인하고, 각국의 군선교가

그 나라들의 사회 복음화에 기여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외교와 국방은 물론 ITC(정보·기술·통신)의 발전과 한류의 확산, 스포츠와 외교, 문화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국의 고유 선교 모델 중 하나인 군선교가 좋은 모델이 되어 세계 각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비전2020실천운동과 민간요소

1) 군종목사 파송 교단 연합사역

군선교연합 대표 기구인 MEAK가 군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선교 동력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목을 파송한 11개 교단 연합활동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군선교역사의 파송과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후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군선교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육군 훈련소교회 신축 등 연합사업에도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 역량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역 군종목사에 대한 선교 지원과 관리, 재교육, 군종목사 후보생 관리, 각종 법령 제정 개정 시 협조 회의 등을 통해 군선교를 통한 한국교회의 일치에 기여하고 있다.

2)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비전2020실천운동이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³²의 결실로 매년

²⁹ 해외 지부는 미국 내 8개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시카고, 워싱턴, 뉴욕, 댈러스, 애틀랜타 등이다. 이중 가장 먼저 조직된 지부는 필라델피아 지부이다(2003. 4. 27).

³⁰ 김순권, op. cit., 322.

³¹ 필자가 참석했던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군종감대회(2007)에서 세계 32개국에서 온 군종감과 군종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군선교가 살아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군종병과는 이슬람 군종장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캐나다와 미국도 '이맘'을 군종장교로 임관시킨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한 공군부대의 교회가 신축된 이후 첫 결혼식이 동성 결혼식이었고, 그 결혼식을 군종목사가 집례한 사례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군선교라는 개념은 미국 등 거의 모든 군종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것으로 파악된다.

³² 육군본부에서 출간한 『군종 50년사』에 따르면 최초의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21사단 66연대의 장로교 합동 소속 이상강 군목이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포함하여 154명에게 세례를 베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당시 교육사령관 김진영 장로의 발의와 주도하에 군 신앙전력 강화를 위해 세례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예하 부대 18명의 군목과 함께 전개한 세례운동이 이어졌다. 이때 교육사령관 김진영 장로는 사재를 들여 십자가 팬던트 10만 개를 제작하여 수세장병들에게 증정하도록 봉헌했다.

군인신자 25만 명을 일반 군선교회원교회로 연결, 사랑의 양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0년에는 3,700만 명이(전 국민의 75%) 성도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민족·인류복음화에 이바지함으로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 양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 예방, 사기 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다.³³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6년이었는데, 1971년 21사단 66연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합동세례식을 제1기라 하고, 1990년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교육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전개된 세례식을 제2기라 한다면, 이때로부터 전개된 비전2020실천운동은 제3기 합동세례식운동이라 할 수 있겠다. 제3기 합동세례식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은 그간의 세례와 군선교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자원과 조직이 다 투입된 가장 최신헌화된 운동이 되었다.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이필섭 장로에 의해 발의되고 기획된 비전2020운동은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듬해 1998년 2월 23일, MEAK 부설기구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가 창립되어 제3기 합동세례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³⁴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군목 파송 10교단³⁵ 교단장과 총무가 모여 비전2020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운동을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선포하였다.³⁶

³³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사역 21세기 기독교운동선포 매뉴얼」(2011), 10-11.

³⁴ 주연중,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군선교신학」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서울: 쿤란출판사, 2004), 204.

³⁵ 2013년 현재는 백석(장로교)교단을 포함하여 11개 교단임.

³⁶ 오덕교, op. cit., 149-150.

한편, 진중세례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세례운동의 하드웨어인 군인교회당 건축에도 힘을 기울여 제2, 3기 세례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인 1991-2000년 사이에 386동의 교회를 신축하고 173동을 개축했다. 이는 그 이전 40년 동안에 신축하거나 개축한 교회 숫자보다 많은 것이었다.³⁷ 이는 수치상으로 보아도 세례운동이 한창 무르익을 때 신축 혹은 개축한 교회당의 숫자가 전체 군인교회당의 숫자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면에서 합동세례운동은 군선교의 현장에 전에 없는 역동성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기독교 운동의 의미가 부각되면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교회 1,000개를 목표로 후원교회 모집을 전개했는데 2004년 초까지 1,743교회가 후원교회로, 1,372교회가 준후원교회로 등록하여 총 3,115교회가 모집 5년 만에 군선교의 민간 네트워크로 구축되는 결과를 낳았다.³⁸

한편,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설치를 전후로 시작된 제3기 합동세례운동 기간인 1996년부터 2012년 사이 17년간 군에서는 3,025,132명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비전2020실천운동이 목표로 했던 연간 20만 명 세례라고 하는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약 40만 명 정도가 모자라는 수치라 할 수 있겠다.³⁹ 그러나 인구의 감소로 인한 모병 인원의 감소, 타 종교의 도전 등의 여건에 비한다면 목표치의 90% 달성은 나름대로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3) 군선교회원교회

회원교회라 함은 군선교에 기도와 물질, 프로그램 실천 등을 후원하기

³⁷ 주연중, Ibid., 204.

³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사역 심포지엄 준비회의 자료」.

³⁹ Ibid.

로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후원 및 프로그램 실천을 이행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회원교회들을 중심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 군세례 장병들의 연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교회의 수는 총 4,400개 정도이다. 회원교회들은 각 지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지회에서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중앙본부의 연합사업에 참여하기도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MEAK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약 4,400여 개의 회원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중 지난 15년간 100명 이상의 세례장병을 연결하여 지역교회 복음화에 참여한 교회가 2,552개 교회로 전체 회원교회의 58%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표3〉 회원교회 등록 현황

구분	합계	기감	고신	기성	기장	기하성	대신	예성	기침	통합	합동	백석	기타
회원	4,394	589	258	262	153	97	123	104	160	1,372	1,104	53	119

※ 출처: MEAK

〈표4〉 출석예정교인(군인신자) 결연 현황

구분	합계	기감	고신	기성	기장	기하성	대신	예성	기침	통합	합동	백석	기타
회원	1,357,642	142,732	85,387	73,377	46,449	34,835	44,560	36,213	54,123	437,194	372,416	9,721	20,634

※ 출처: MEAK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이와 같이 회원교회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수세장병들의 관리와 그 가족에 대한 전도 그리고 전역 후 민간교회에 정착하는 단계까지를 군선교 현장의 사역자들과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비전2020실천운동이 민간요소에 미친 영향

역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이 민간요소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크다 하겠

다. 우선 군목과송 11개 교단이 연합사업으로 군선교를 추진하며 교단을 초월한 선교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학원선교와 함께 21세기 민족복음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4천 개 이상의 군선교회원교회를 확보함으로써 범교회적 단일 선교 이슈를 확립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조국의 군복음화를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힘을 모으는 구심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5.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발전 방향

1) 정책적 기여

민간교회나 MEAK 차원에서 군선교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을 마련하여 한반도 안보 환경 및 한국군 병영 환경의 변화에 연동된 실제화된 군선교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MEAK 내에 군선교신학회와 한국군선교연구소, 한국군상담심리코칭학회 및 생명존중센터, 군선교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예비역 군인 연합회나 예비역 군목회 등을 통해 군 경험에 기초한 실제적인 정책 개발 및 정책적 지원활동이 있게 되면 군선교 현장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 시설의 대부분은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목적에 맞는 시설을 건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민간요소의 지원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군목 과송 11개 교단 협력이나 여전도회, 남전도회 연합기구, 해외 지부 등이 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군선교에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 전략적 검토를 한 후 정책을 입안하여 군종목사단 및 군선교 교역자단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⁴⁰ Ibid.

한편, 군선교의 핵심 동력인 군종병과 신우회를 강력한 자원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현재 MEAK에서는 군선교사훈련 비전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도시 혹은 대도시의 중소 교회들도 연합사업으로 병사나 간부로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남녀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전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하다. 서울의 한 교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씩 입대 전 예비 군선교사 교육을 하기로 하고, MEAK와 인접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부대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표5〉 입대 전 군선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예

시 간	주 제	강 사	비 고
08:30~09:00	등록/간식	간사	
09:00~09:30	경건회/오리엔테이션	지도목사/담당장로	
09:30~10:30	군대와 군선교 이해	육군본부 군종감실 (국방부 군종실) 교육장교	군에 대한 이해와 군선교 현황
10:30~10:50	휴식	간사	간식/환담
10:50~11:45	병 생활 안내	현역군종목사	입대부터 전역까지/병영생활 안내 및 종교생활
11:45~13:00	중식(병식체험)	지도목사	병식체험추진
13:00~13:50	군선교 영상/ 선사인 운동	군선교연합회총무	기독병사가 병영에서 할 수 있는 선교적 접근법
13:50~14:00	휴식	간사	간식/환담
14:00~14:50	위기의식과 군선교	OOO 목사	위기의식의 양상과 선교적 이해 향상
14:50~15:00	휴식	간사	
15:00~16:00	준비된 군선교사, 바람직한 군생활	군종병(현역/예비역)/ 지도목사	군선교사의 역할 실제/체험전달
16:00~16:30	군선교서약서 작성/ 폐회예배	세계선교부 OOO 목사	

※ 출처: 사랑의교회 세계선교부 군선교위원회

민간요소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현역 군종목사의 전역 후 사역 지원이다. 단기 복무자나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사역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군선교에 매진하는 동안에 민간교회와의 접촉이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각 교단별로 혹은 MEAK 차원에서의 이른바 ‘군종목사 사역 연결 프로젝트’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군선교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 이후의 사역의 길도 열리는 사역의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군선교에 더욱더 소신껏 그리고 최고의 역량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가는 예비역 군종목사들이 지속적으로 군선교에 참여하는 부수 효과도 있을 것이다.

2) 후원 모델 개발

군선교에 대한 민간의 후원 모델로 현재 채택되고 있는 것은 교회회원, 개인회원, 가족회원, 정기회원, 평생회원 등으로 구분하여 후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선교신문 광고 협찬, ARS 후원 등이 있는데 광고 협찬의 경우 연간 2,500만 원 정도이고, ARS 후원은 연간 60만 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중앙본부의 경우 후원회원을 확보하여 교회, 개인, 단체, 가족별로 지정된 계좌 단위로 후원을 받고 있는데, 교회 회원의 경우 약 223여 개, 단체 18개, 가족 376가족인 정도이다. 지부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로 회원들의 후원을 받아 지역별로 군선교사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후원금액도 미미한 실정이다.

〈표6〉 2012년도 중앙본부 후원 현황⁴¹

구분	계좌수	회원수	입금액	비고
교회회원	556	221	320,310,000	1계좌당 월 5만 원
단체회원	55	18	30,188,400	
가족회원	571	376	61,321,000	1계좌당 월 1만 원
개인회원	672	404	39,595,000	1계좌당 월 5천 원
합 계	·	1,019	451,414,400	
비 고	월 평균 후원금액 약 37,700,000원			

※ 군선교회원교회는 군세례신자 결연교회를 뜻함.

MEAK의 보고에 따르면 중앙본부를 제외한 16개 지회의 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⁴²

〈표7〉 2012년 16개 지회 후원 현황

지회명	설립연도	정기후원회원					월평균 후원금(원)	군선교회원교회 수
		교회	단체	가족	개인	계		
중부지회	1985	62	5	282	339	688	9,107,433	285
부산지회	1988	22	2	12	29	65	2,580,906	250
대경지회	1988	28	3	0	42	73	7,227,283	414
광주지회	1991	26	1	0	0	27	1,931,083	308
동부지회	1999	39	5	67	101	212	4,267,417	166
제주지회	2000	19	0	39	58	116	2,288,084	59
전북지회	2000	38	1	47	4	90	4,025,794	377
충북지회	2000	14	0	1	60	75	1,443,681	144
울산지회	2001	8	23	2	33	66	2,233,233	72
경남지회	2001	25	0	93	170	288	2,825,942	·
강원지회	2002	13	0	0	2	15	1,396,104	·
전남지회	2002	12	3	0	4	19	1,090,833	·
강원영동지회	2002	17	0	5	55	77	2,433,317	74
충남지회	2003	29	0	25	53	107	4,234,167	
경북지회	2003	32	0	5	1	38	2,613,258	33
경인지회	2005	42	6	31	48	127	3,890,755	451
계		426	49	609	999	2,083	49,473,497	2,633

민간요소의 후원을 분석해 보면 4천여 개의 비전2020실천교회들이 후원교회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현재는 그 절반을 조금 웃도는 2,600여 교회만이 후원교회(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래출석교인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교회라면 군선교 후원교회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단체회원의 확대도 시급하고 개인 및 가족회원은 개인적으로 부담도 크지 않고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효과적인 회원 증가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역 군종목사 및 예비역 군종목사, 군선교 교역자 등도 개인회원(월 5천 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면 후원 금액 증가 이외에도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와 불교의 경우는 군종교구장이나 추기경, 혹은 기타 명망 있는 인사들이 등장하여 군선교와 포교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후원을 독려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육군훈련소 성당 신축에 이 방법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3) 자매/연결 사업 활성화

비전2020실천운동의 결실은 수세장병들이 전역 후 민간교회로 연결이 될 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는 전 국민의 75%가 성도인 기독교 국가이다. 법과 제도가 성경적으로 구축되는 사회의 건설이 목표이다. 그렇다면 첫째, 세례운동 자체가 밀도 있게 진행되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과정, 즉 거듭남의 표식으로서의 세례가 행해져야 한다. 현재 훈련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개종 형태의 합동세례에 대해서는 여러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복무 중

⁴¹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⁴²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166.

⁴² Ibid., 219-235.

인 병사들의 합동세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⁴³

실제로 최근 MEAK에서 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을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종병 및 신우들 중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전2020실천운동의 시작 배경과 과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역시 비슷한 비율의 병사들이 이 운동의 실천 방안에 대한 군종병과 신우들의 역할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군종목사의 경우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시작과 배경에 대해 대부분이 알고 있었는데, 주로 MEAK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군종목사단 내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62명)는 숫자보다는 ‘그렇지 않다’ (91명)라고 대답한 숫자가 높았다.

훈련소에서의 세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 이곳에서는 민간요소와 관련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최석환은 그의 논문에서 신병교육대에서의 세례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병사들이 받는 세례의 90% 가량이 신병교육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세례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이나 회심에 대한 점검이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세례를 두 번 이상 받은 병사가 조사 대상자 중 세례 받은 장병의 1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⁴⁴ 세례에 대한 각종 수치나 기록을 앞세우는 풍토도 재점검해 필요가 있다. 민간교회가 신병교육대에 세례식 지원을 할 때 인원이 적으면 행사를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이런 풍토가 부실한 세례 현상을 불러온 원인 중의 하나임을 자성하는 기회가 될

요하다.

세례와 양육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군종목사들의 대부분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천 분야들 중에서 제자훈련 등 양육(91명), 세례장병 민간교회 결연(79명), 진중세례식(56명) 등을 우선순위로 꼽음으로 향후 군선교에 있어서 양육과 민간교회 연결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비전2020실천운동본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민간교회와 연결 사업이다. 현재는 회원교회의 절반 정도가 미래신자들을 소개받아 연결을 하고 있지만 전체 세례 받은 장병의 10% 미만인 1만 4천 명 정도만이 민간교회와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결이 10%를 밑도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세례가 신병교육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병교육대에서 자대, 자대에서 민간교회 간 연결에 많은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병교육대에서 자대로 넘어오는 수세장병의 명단이 미미하고 수세장병의 자대 정착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재원의 보고에 따르면 3군단의 경우 세례장병의 자대 정착이 10%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⁴⁵ 이런 통계가 곧 왜 수세장병의 민간교회 연결이 대상자의 10%에 머물고 있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세장병 연결을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자대로 명단을 보내는 문제와 자대에서 전입 장병 중 해당 병사를 찾아 부대주소를 명기하여 가정과 인접 회원교회로 보내는 일을 누수 없이 해야 한다. 수많은 회원교회들이 수세장병 명단을 받아 보았지만 부대주소가 명기되지 않아 통신이

⁴³ 김창제, *op. cit.*, 212.

⁴⁴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Ph. D. diss, 충신대학교, 2007), 233-235.

⁴⁵ 정재원,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점검과 군선교 전략 수립”, 27. 이 논문은 학술지 등에 게재된 바는 없으나 2012년 국군장로연합회에서 개최한 군선교 발전 세미나의 주제 발제 논문임.

불통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한 세례이다. 충분한 교육과 문답 그리고 회심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배푼 세례는 수세자의 실종과 재개종이라는 허무한 사례를 양산하게 된다. 세례를 받은 후에는 마치 통과 의례를 치른 것처럼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충실한 세례를 통해 단 한 명의 장병이라도 자대교회와 민간교회로 연결지어 미래신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대에서의 양육이다. 자대에서 양육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명단 파악은 물론 민간교회로의 연결과 민간교회와의 공동 양육도 가능하다.

〈표8〉 연도별 수세자 및 회원교회 결연 현황⁴⁶

구 분	수세인원	명단수집인원	연결인원	전수조사 인원
2012년	177,110명	131,438명	108,562명	180,497명
2011년	184,320명	147,178명	127,285명	171,245명
2010년	182,614명	132,744명	108,035명	200,656명
2009년	171,435명	122,781명	104,393명	194,341명
2008년	174,550명	163,733명	104,234명	
2007년	153,225명	122,637명	105,160명	
2006년	154,808명	146,955명	89,135명	
2005년	162,260명	107,928명	93,212명	
2004년	161,825명	114,434명	100,815명	
2003년	155,767명	92,810명	68,965명	
2002년	182,230명	111,798명	110,248명	
2001년	186,959명	143,996명	102,881명	
2000년	187,156명	128,535명	96,393명	
1999년	216,080명	37,129명	30,430명	
1998년	207,951명	11,077명	8,052명	

※ 출처: MEAK

⁴⁶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68.

셋째로는 장병들을 전도하여 세례 주는 인원과 자대에서의 군인신자 기록 카드가 수집되는 인원수와 지역교회로 결연되는 인원수가 동일해야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⁴⁷ 따라서 앞으로는 대대급 이하에서의 체계적인 양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군선교 교역자가 시무하고 있는 대대급 교회도 비전2020실천운동의 열매를 맺는 산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군선교 교역자 후원

군선교 교역자는 현재 약 632명으로 현역 군종목사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군선교교육원을 수료해야 하며 연령도 65세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 가고 있다. 군종목사와의 동역자 정신을 공유하며 군종활동은 군종목사 중심으로, 선교와 목양은 군선교 교역자와 군종목사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점차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

〈표9〉 군선교교역자 현황

연 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
전담	362명	388명	367명	370명	389명	354명	·	341명	·	·
비전담	216명	222명	223명	274명	287명	268명	·	134명	·	·
총계	578명	610명	590명	644명	676명	622명	680명	475명	684명	404명

※ 자료: MEAK 제공

그러나 군종목사에 비해 신분이나 사역 환경 그리고 장병들과 신자들의 인식 면에서 다소 어려운 조건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유 있는

⁴⁷ Ibid., 68.

사역을 하기보다는 늘 힘겨운 조건들을 헤쳐 나가야만 하는 사역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군선교 교역자의 사역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교회가 사역의 전반을 담당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군선교회원교회 관리 현황과 담임목사의 관심과 의지

군세례신자가 각 지역별 군선교회원교회로 결연되면, 회원교회는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의 출석예정교인 관리 프로그램인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 프로그램’과 ‘VIP가족전도 10대 실천사항’⁴⁸ 프로그램을 교회 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매뉴얼대로 잘 적용만 하면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은 눈부시게 한국교회 성장과 다음 세대를 더 부흥케 함으로써 21세기 한국교회 성장에 새로운 에너지요 원천이 되는 동역임이 분명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MEAK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자체 분석 통계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약 30명의 사역위원들이 수도권에서 9개 교구를 편성하여 방문, 서신, 전화 등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해 233교회를 방문하는 등 매년 평균 200여 교회를 방문하여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 실태를 확인하고 각 교회별 맞춤형으로 리더하고 있는데, 수도권 교회 32회원교회 중 관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보통(C급) 이상의 수준인 교회가 불과 301교회(36%)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교회별 담임목

⁴⁸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 프로그램: ① 청지기 임명 ② 전도특공대 편성(조직) ③ 기도하기 ④ VIP가족전도 ⑤ 편지보내기 ⑥ 선물보내기 ⑦ 심방(번회)하기 ⑧ 초청하기 ⑨ 영접하기(전역 시) ⑩ 후원하기(선교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사역매뉴얼 22판」(2011. 3. 24), 28.

사의 목회철학과 관심, 실천의지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군인교회나 군선교회원교회나 모든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의 한국교회의 유일한 소망 중의 하나가 군선교이다. 현실적으로 청년 전도의 뿌리가 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담임목사라면, 이미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포된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은 이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6. 평가와 제언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담당한 분야의 사역의 형태는 다양했고 분량도 절대적이었다. 군선교의 태동 단계부터 함께한 민간요소의 기여가 앞으로는 더 다양해지고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요소의 기여 분야가 세례와 건축 그리고 세례신자 연결이라고 하는 구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례가 주로 훈련소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자대 정착률과 민간교회 연결에 있어서 저조했다는 통계는 의미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통계는 세례가 정확하고 본질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후의 진행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각 부대 훈련소 교회와 육군훈련소 교회를 텅 비울 각오로, 그리고 세례를 ‘0’

⁴⁹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78.

(zero)가 되어도 좋다는 의지로 세례를 정확하고 복음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몇 명이 되었거나 자대 정착률과 연결률이 높아질 것이고,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적인 성도가 75%인 기독교 국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확한 복음의 증거와 이에 따른 자연스런 세례와 양육, 연결의 과정이 굳게 형성(formation)되어 간다면 민간요소의 참여도 더욱 열기를 더할 것이다.

7. 결론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날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병영 환경도 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다. 여성간부의 증가로 인한 군 인력구조의 변화, 기계화와 경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등 국방력의 증강,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전시작전권 이양 등의 전례 없이 폭이 큰 군 지휘구조의 변화 등은 향후 군중 활동이나 군선교도 선제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긴장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할이 언젠가는 제한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 선진국 군의 경우를 보면 그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군선교와 관련된 민간교회는 약 45천 개 교회로서 전체 한국 기독교교회의 약 7% 정도이다. 따라서 민간요소의 군선교 동력화의 개발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장병세례 운동인 것은 틀림없지만, 목적은 성도가 75%인 기독교 국가 건설이다. 결국, 한국교회 전체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사역인 것이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을 21세기 한국기독교운동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며, 차제에는 우리나라를 성경에 기초한 국가로 만드는 사역과 관련하여 비전2020실천운동이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관련된 연구와 제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비전2020실천운동과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할과 기여는 막대했다. 향후에도 새로운 기여 모델을 적용하여 군선교가 다시 한 번 민족 복음화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 군선교회원교회 중심 -

A Comment: A study on the effec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ivil elements for the Military mission-based on the Vision 2020 Movement

강사문 Kang, Sa Moon

- 서울장신대학교 석좌교수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본 논문 “군(軍)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군선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검토하고 토론했어야 할 귀한 논문이다. 왜냐하면 인적·물적 등 제한된 군 구조 속에서 군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은 절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군이란 국가와 민족의 안보를 위해 편성된 특수 조직이므로 군선교란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전제 속에서 법령에 따라 군에서 허용한 4개 종교가 군 조직의 존재 목적에 반하지 않고 공존하는 가운데 각 선교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선교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즉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군(軍)선교란 ① 군대(軍隊) 내에서 종교 자유가 전제(前提)되어야 하고, ② 법에 따라 허용된 종교라도 군의 존재(存在) 목적(目的)에 반(反)하지 않아야 하고, ③ 피차 공존(共存)하는 가운데 각기의 선교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한계(限界)를 지닌 특수 선교라 할 수 있다. 군이 선교의 황금어장이라 하지만 이런 제한된 여건 속에 선교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요소(民間要素)는 절대 필요한 요소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必須)임을 알 수 있다.

민간요소란 군 밖의 조직이나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성직자 파송, 관리, 후원 등을 말하는 것인데, 군 내부에서 성직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민간 종교단체가 이런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군선교를 위해서는 민간협력은 필수 조건임을 설명한다. 본래 민간요소란 군 작전 프로그램 METT-TC의 마지막 요소인 C, 즉 civil considerat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간교회 및 목회자, 종교단체, 교단, 민간 성직자 등 군선교와 연관된 모든 민간요소를 말한다고 한다. 군선교의 대상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군인, 군속, 군무원과 그 가족원들이다. 그래서 저자는 군선교의 절대 필수 요건인 민간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한다.

우선 저자는 지난 60여 년간의 군선교에서 민간요소의 역사(歷史)를 점검하고, 특히 군선교연합회와 관련 단체들을 살펴본 후 그들의 핵심 주제인 2020운동과 민간요소의 관계를 관찰하고, 군선교를 위한 민간요소의 발전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라고 한다. 본 논문은 군선교에 관련된 용어 정리, 민간요소의 역사와 그 역할, 2020운동과 민간요소 그리고 민간요소의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1.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사

우선 저자는 군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민간요소는 1948년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목이었던 정달빈 목사와 군인들과 그 관련 가족들이 남산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1949년에 3군 장교들과 가족들이 합동으로 용산에 군인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1948년 전 북 군산에 주둔했던 보병 12연대에서 백인기 연대장을 비롯한 기간 장교들이 군산 일대의 목회자들을 초빙하여 군부대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1949년 10월 23일 이후에 이 보병 12연대가 인천으로 이동하였는데 마침 미군부대가 철수한 그 자리로 이동하게 되어 거기서도 인천 목회자들을 초빙하여 군부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그 후 1951년부터 1954년까지 군종제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135명의 무보수 성직자가 군선교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군선교는 민간교회와 목회자의 참여로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 월남전 파병을 전후하여 민간교회가 군선교에 적극적 자세를 보였으며, 1972년 전 군복음화를 위한 조직과 운동이 전개되면서 전군신자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운동이 후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의 모체가 된 것이다.

1974년 한경직 목사가 이 연합회의 2대 회장이 되면서부터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군복음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연합회가 군복음화 후원회(1976년)로 개칭되면서 민간교회는 진중교회당 건축을 비롯하여 전도, 정책, 교육, 홍보, 복지 등 군선교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후원한 결과 진중세례운동을 통해 민족복음화를 창출하지는 비전2020실천운동으로 승화되면서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 중에, 1999년 총회에서 이 운동의 조직 명칭을 본래 명칭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이 연합회는 중앙회를 비롯 국내외 25개 지회를

두어 지역별로 초교파적으로 군선교를 위한 지원활동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할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회와 교단, MEAK, 군선교 교역자와 해외 MEAK 지부의 교회와 단체 등으로 나누어 영역별로 현황을 서술한다.

① 현재 군선교를 위한 지원하는 교단은 개신교 11개 교단이 군선교 후원 교단연합회에 참여하여 2012년에 약 35억을 후원금으로 세례식, 위문, 육군훈련소 예배당 신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교회로는 그 교단 산하 4300여 교회가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240교회와 단체가 약 600여 명의 군선교 교역자의 선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단별로도 군선교를 위한 기구가 존재하고 자기 교단 나름대로 군선교 후원에 기여하고 있다. 또는 ROTC 예비역 기독교연합회 같은 초교파적으로 군선교를 위한 조직이 있어 군선교 후원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MEAK는 군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단일화 창구로서 진중세례 및 건축, 교육, 복지, 출판, 장학 등 16개 사업에서 총 240억 원을 군선교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군선교연합회는 좀 더 현실 구조에 맞게 사업계획을 조절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체가 겸비한 토대 위에 체계적 지속 가능한 선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선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교회와 교단은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선교는 초교파연합사업의 모델로 정착하게 되어 11개 교단의 연합, 개교회의 연합, 지역의 연합, 관련기관의 연합 등 민관이 연합하는 연합운동의 산실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③ 군선교 교역자의 역할을 서술한다. 군선교 교역자란 민간인 신분으

로 군인교회를 섬기며 군선교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632명의 기독교 교역자를 말한다. 현재 군인교회는 1004개 교회가 있는데 군목은 261명밖에 안 되므로 나머지 700여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으므로 군선교 교역자는 군선교를 위해 불가피한 존재들이다. 연간 20억 정도로 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④ 마지막 민간요소는 해외에 있는 MEAK 지부를 통한 군선교의 후원 단체들이다. 이는 해외에 있어도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정신이 뒷받침되어 교민사회와 교민교회를 통해 조국의 군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다. 저자는 한국 군선교의 모델이 다른 나라 군선교에도 전수되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여기서 민간요소로는 교회, 교단과 MEAK를 구분하여 다루었는데 두 조직이 다 개인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만큼 직접 간접후원으로 구분하지, 아니면 민간단체 1-2로 구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해외 MEAK 지부는 MEAK란에서 다루어도 될 것이고, 군선교 교역자는 교회의 후원을 받는 만큼 교회와 교단 역할에서 다루었으면 어떨까 한다.

3. 비전 2020 실천운동과 민간요소

여기서 민간요소는 군종목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군선교 교역자들까지도 후원하는 각 교단과 교회의 역할을 다루고, 비전2020운동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과 그 후원교회와 비전2020운동이 민간요소에 까지 끼친 영향을 다룬다.

① 군종파송교단과 교회의 역할을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인지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교단과 교회가 군선교 교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후원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② 1998년에 MEAK 부설기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시작된 비전2020실

천운동은 군선교에서 시작되어 온 국민의 75%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민족복음화를 위해 출범한 범교단적 선교운동이었다. 2020운동의 구체적 복안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을 일반 군선교회원교회로 연결, 사랑의 양육을 통해 2020년에는 전 국민의 75%인 3,700만 명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그래서 이 비전2020운동은 모범국민 양성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애국애국운동이요, 군으로서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여망하는 바 신앙전력화운동이요, 교회로는 민족복음화로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여파로 1991-2000년 사이에 군인교회 386동이 신축되고 173동이 개축되었으며, 민간 후원교회도 2004년 초까지 1,743개 교회가 후원교회로, 1,372교회가 준후원교회로 등록하여 총 3,115개 교회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합동세례운동도 1996-2012년에 사이에 군에서 3,025,132명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초기의 목표치에는 미달되지만(약 40만 명) 약 90%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③ 군선교회원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후원, 또는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들 회원교회들을 중심으로 군에서 세례받은 세례장병들을 연결하여 비전 운동의 결실을 맺기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후원교회 수는 4,400여 개 교회로 지회 행사에도, 중앙본부의 행사에도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이들 중 2,552개 교회가 지난 15년간 100명 이상의 세례장병들과 연결되어 지역 복음화에 공헌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후원 회원교회는 후원을 넘어 수세장병들의 관리, 그들의 가족전도, 전역 후 민간교회에 정착과 적응 단계까지 도와주는 선교의 큰 역할을 담당하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비전2020운동의 여파로 군선교를 위해 초교파로 4천여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물론, 교단까지 협력하는 연합정신의 함양은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학원선교

와 함께 21세기 민족복음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선교를 위해 국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까지도 힘을 모으는 구심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4.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발전방향

여기서는 군선교에 있어서 정책적 개발에 민간요소가 기여할 점들과 후원금 모금에 대한 방안 제시, 군 수세자들을 회원교회에 연결하는 자매 연결 활성화 방안, 군선교 교역자들에 대한 예우 개선과 회원교회의 관리 현황과 담임 목사의 관심 등을 조명한다.

① 한반도 안보환경과 군 병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선교정책도 중·장기로 개발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지닌 군선교신학회, 군선교연구소, 군상담심리코칭학회 등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예비역 군인연합회나 군목회를 통해 군 경험에 기초한 실제적 정책개발 및 지원활동이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후원이 절대적이라고 한다. 한편 군선교의 핵심 동력인 군종병과 신우회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함으로 비전캠프 프로그램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 군선교 관련자들을 양육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군종목사의 사역연결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여 현역 시절은 물론 예편 후에도 군선교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한다.

② 후원모델 개발을 제안한다. 현재 교회회원, 단체회원, 가족회원,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후원 조직을 활성화하며, 16개 지회후원 교회 수가 4천여 교회이지만 실제로 2,600여 교회(약 58%)만이 후원하는 상황이므로 후원금 확대를 위해 교계지도자들의 적극적 협력과 찬조가 요청된다고 한다. 특히 군선교회원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의 관심 여하에 따라 후원이 좌

우되는 것이므로 담임 목사의 각별한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③ 현재 578명의 군선교 교역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후원과 훈련이 요청된다고 한다. 군종업무는 군목이 하지만, 군선교는 군목과 군선교 교역자가 합심하여 협력하여 바람직한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선교 교역자들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교회가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요청된다고 한다.

④ 마지막으로 군선교를 위해 군과 민간교회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의 수세자들이 회원교회에 잘 연결되어 양육을 받아 믿음의 신자로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군과 회원교회의 연결과제의 활성화이다. 현재까지 세례받은 자가 지난 17년간(1996-2012) 300만에 달하는데 전역 후 실제로 회원교회에 연결된 수는 1만 4천 명(1% 미만)이라고 하니 회원교회와 수세자의 연결문제는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신병교육대에서 세례 받은 자들(군 전체 세례자들의 90% 정도) 중에 10% 정도가 자대에 정착한 것과 대비된다고 하나 의문시된다. 연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례의 진정성 확립, 즉 세례교육과 문답, 회심의 확인 등을 거친 후에 개종의 확신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준다는 것이다. 세례자 양산이나 이중세례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수가 적어도 창조적 소수가 더 값지다. 다음은 자대에서의 양육 또는 민간회원교회와의 합동으로 양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진정한 회심으로서의 세례와 양육을 통한 군선교만이 실제적인 선교임을 제안한다.

결론으로서 저자는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요소의 역할이 제한될지도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군선교의 회원교회는 한국 기독교 교회 수의 7%에 불과한 상태에서 회원교회만이 군선교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모든 교회에 참여의 필요성과 관심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비전2020운동은 장병세례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2020운동을 21세기 한국 기독교 운동으로 승화시켜 성경에 기초한 한국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끝맺는다.

논찬자로서 군선교에 있어 민간역할은 막대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1998년에 시작된 비전2020운동의 최종 목표는 전 국민의 75%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운동이므로 21세기 한국 기독교 운동으로 승화시켜 성경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야 함을 제안하고 주장하는 저자의 제안은 바람직한 전망이고 이루어야 할 우리의 교회의 과제라고 보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세 가지 면으로 이 논문을 평가한다면, 첫째, 군선교를 위해서는 선교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확인시켜 민간후원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군선교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군선교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전수되고 강조되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강조하면 군선교가 활성화되고 후원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점들이 좀 더 강조되었으면 한다.

둘째,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의 역할(3항목)과 2020운동의 민간요소(4항목)라는 항목은 구조와 내용이 유사한 것이므로 하나의 항목에서 동시에 취급하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1개 교단과 교회, MEAK의 비전2020운동, 군선교 교역자 등을 양쪽 항목에서 두 번 언급함으로 중복의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다루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교회도 MEAK도 다 같은 단체이므로 교회와 연합회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구별한다면 군선교의 전문성과 비전문성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요소의 역할이라는 용어보다 민간의 역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민간요소의 발전 방향에 제시된 모델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군선교 정책도 전문성과 비전문성으로 나누어 교회나 교단이 할 것과 연합회가 할 것을 구분하여 각자가 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무조건 교회는 후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과 교단도 그들 나름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제안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후원금 모금도 저조한 것이 사실인데 뽕족한 방법이 제시된 것이 없다.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군의 수세자들과 회원교회와의 연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군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책임이 큰 것이므로 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민간교회는 이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귀한 논문으로 앞으로의 군선교의 비전을 주신 주연종 목사님께 감사 드린다.